

20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복지예산의 함의

목차

- 20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
복지예산 변화
- 20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
복지예산의 특징 및 함의
- 정책제언

2024년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 약 12% 복지예산 증가

- ▶ 2024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2.8% 증가한 반면,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.4조로 12.1% 증가
 - 보건복지부 예산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증가와 저소득 취약 계층 중심의 세부사업 예산 증가에 기인
- ▶ 2024년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.8% 증가한 약 9조원
 -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의 대상자, 급여액 인상에 따른 지방대응비의 증가로 전체 경기도 복지국 예산증가액의 71%를 차지
 - 전년도에 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, '24년 새로이 신설된 복지사업은 총 34개 사업, 약 502억원 수준으로 전체 복지예산 증가의 4.7% 차지

중앙은 '약자복지',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이 예산 증가를 견인

- ▶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의 증가는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흐름과는 달리 약자 복지의 기초속에서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, 허상이라는 지적이 다수 제기
- ▶ 경기도 복지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대응비가 증가한 반면, 자체사업 예산 저조
 - 2024년 경기도에서 신설된 복지사업 34개(약 502억원) 중 경기도에서 발굴한 사업은 20개(293억원)로, 자체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증가는 부족한 수준

정책 제언

- ▶ 민선8기 경기도 복지 핵심사업의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이 긴요
- ▶ 중앙정부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확대 적극 고려



9 772982 554000

ISSN 2982-5547

I. 20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복지예산 변화

보건복지부
예산증가율은 총 예산
증가율의 4배

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증가율은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 2.8%보다 4배 이상 높은 12.1%로 나타남

- ▶ 2024년 중앙정부의 전체 총 지출은 656.6조원으로 전년대비 2.8% 증가하였으며,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2.4조원으로 전년 대비 12.1% 증가
 - '24년의 우리나라 총 예산은 약 659.9조원으로 전년 대비 2.8%가 증가하였으며, 이 중에서 보건·복지·고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42.9조원이며, 보건복지 예산은 122.4조원으로 나타남
 - 이는 중앙정부 총 지출에서 복지부 총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8.6%로 전년대비 1.5%p 상승한 수준이며, 부문별로 변화한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음

〈표 1〉 2024년 보건복지부 부문별 예산변화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3년 예산 (A)	2024년 예산 (B)	전년대비	
			증감 (B-A)	%
총 지출(A+B)	1,091,830	1,223,779	131,949	12.1
예 산 (A)	681,447	741,794	60,347	8.9
기 금 (B)	410,383	481,986	71,603	17.4
사회복지 ①	922,185	1,049,119	126,934	13.8
- 기초생활보장	164,059	179,197	15,138	9.2
- 취약계층지원	46,112	51,068	4,956	10.7
- 공적연금	371,600	443,320	71,720	19.3
- 아동·보육	98,470	108,888	10,418	10.6
- 노인	232,289	256,483	24,194	10.4
- 사회복지일반	9,655	10,163	508	5.3
보 건 ②	169,645	174,660	5,015	3.0
- 보건의료	45,543	37,590	△7,953	△17.5
- 건강보험	124,102	137,070	12,968	10.4

-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적연금 부문이며, 다음으로 취약 계층지원, 아동·보육, 노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또한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최대급여액 인상,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, 생계용 자동차에 대한 월소득환산 제외 등 예산증가가 나타나고 있음
- ▶ 이외에도 주요 복지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지원내용 및 자격기준의 변화로 인해 복지예산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

I. 20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복지예산 변화

생계급여 등 자격기준
완화 및 현금성수당
(부모급여) 신설

〈표 2〉 2024년 복지대상자별 지원내용 및 자격기준 주요 변화

구분	사업명	지원 내용	'23년	'24년
저소득층	생계급여	- 최대 생계급여액(4인 가구) - 선정기준 상향(기준중위소득 대비) -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	162만원/월 30% 4.17%	183.4만원/월(+21.3만원) 32% 소득산정 제외
		- 다자녀·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	승용 승합 1,600cc 미만 1,000cc 미만	2,500cc 미만 소형 이하
	의료급여	-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* * 1촌 직계혈족 배자의 소득 연 1억원/일반재산 9억원 이하 -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(기본재산공제액 상향)	적용 2.28억원(서울)	폐지 3.64억원(서울)
	자활급여	- 자활근로 대상자 확대	6.6만명	6.9만명
	다임씨앗 통장	- 가입연령 확대 - 소득요건 완화	12~17세 / 생계의료급여 (기준중위소득 40%↓)	0~17세 / 주가교육급여 (기준중위소득 50%↓)
재난의료비	- 산정방식 개편	질환별 의료비 산정	질환 관계없이 총액 산정	
노인	노인 일자리	- 일자리 수 확대 - 보수 인상	88.3만개 27만원 71.3만원	103만개 29만원 76.1만원
	노인맞춤 돌봄	- 중점돌봄군 돌봄시간 확대	월 16시간	월 20시간
	기초연금	-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인상	월 32.3만원	(잠정)월 33.4만원
	요양병원 간병지원	-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실시('24.7월~)	-	10개소(600명)
청년	자립준비 청년	- 자립수당 인상 -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-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	월 40만원 180명 2.0천명	월 50만원 230명 2.8천 명
	가족돌봄 청년	-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도입 - 자기돌봄비 신설	-	4개 시도(2.4천 명) 연 200만 원
	고립은둔 청년	-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도입 -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	-	4개 시도 청년 320명, 가족 640명
장애인	장애인연금	- 급여단가 인상	월 32.3만원/월 8만원	(잠정)월 33.4만원
	장애인 활동지원	- 가사급여 대상 확대 - 3~7급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자격 부여	0.6만명 -	1.0만명 9월부터~
	최중증 발달 장애인	- 1:1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- 종사자 전문수당 신설	- - 1개 시도	1,500명 500명 17개 시도
	장애인 일자리	- 일자리 수 확대	3.0만개	3.2만개
	장애인가족 양육지원	-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	연 960시간	연 1,080시간
	발달재활 서비스	- 지원 인원 확대	79천명	86천명
	임신 출산 지원	- 필수가임력(생식건강) 검진비 지원 신설 - 방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-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-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설치 - 위기 임신부의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위기 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도입	-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7개소 -	여성 10/남성 5만원 회당 100만원(2회) 소득기준 없음 9개소 12개소
출산·양육 지원	역유아 건강관리 지원	-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-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하 확대 -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보거소 확대 -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	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1년 4개월 59개소 100명	소득기준 없음 2년 75개소 278명
	부모급여	- 지원단가 인상	월 70만원/월 35만원	월 100만원/월 50만원
	첫만남이용권	-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인상	200만원/200만원	200만원/300만원
	저소득층 가사서비스 지원	- 기저귀/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	기저귀 월 8만원 분유 월 10만원	기저귀 월 9만원 분유 월 11만원
	보육료 지원	- 0~2세 장애아보육료 단가 인상 - 영아반 개설(유지) 인센티브 신설	22.1만~65.3만 원 -	23.2만~68.6만원 23.2만~62.9만원
	시간제 보육	-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	1,030개 반	2,315개 반
	사각지대 대응	고독사 예방	-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전국 확대	9개 시도
간급돌봄	- 간급돌봄 서비스 전국민 확대	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	돌봄 필요한 모든 국민	

I. 20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복지예산 변화

경기도 복지국예산
증가의 71%는
생계급여와 기초연금

- ▶ 그러나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증가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세부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'약자복지'의 기조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
 -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'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, '약자복지 강화'를 천명하고 있으며, 구체적으로 6개의 과제를 설정(9개 세부사업)하고 있음
 - 약자복지의 강화는 크게 ①기초생활보장, ②장애인 돌봄, ③노인일자리, ④취약 소상공인 지원(경영응원), ⑤다문화 지원, ⑥생활 체감형 청년지원(4종) 등으로 구분
 - 이는 앞선 부문별 예산변화와 지원내용 및 자격기준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

2024년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.06조원(11.8%) 증가한 9조원 가량이며, 부서별로는 복지사업과와 노인복지과의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

- ▶ 중앙정부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의 대상자, 급여액 인상에 따른 지방대응비의 증가로 인해 두 부서의 예산이 크게 증가
 - 복지사업과의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약 3,956억원이며, 이 가운데 생계급여 자격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증가한 예산은 3,299억원으로 전체 인상분의 83.4%를 차지
 - 노인복지과의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약 4,814억원이며, 이 가운데 기초연금의 급여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액은 4,267억원으로 88.6%를 차지
 - 결국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두가지 사업의 예산증가액이 총 7,566억원으로 전체 복지국 예산증가액의 71%를 차지하고 있음

〈표 3〉 2024년 경기도 부서별 복지예산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3 예산액	예산증가액	2024년				
			합계	국비	균특회계	기금	도비
복지정책과	63,479,914	6,313,238	69,793,152 (100%)	1,214,065 (1.7%)			68,579,087 (98.3%)
복지사업과	3,658,642,809	395,603,716	4,054,246,525 (100%)	3,154,357,474 (77.8%)	46,834,149 (1.2%)		853,054,902 (21.0%)
노인복지과	4,204,870,602	481,401,504	4,686,272,106 (100%)	4,057,055,636 (86.6%)	83,566,482 (1.8%)		545,649,988 (11.6%)
장애인복지과	962,348,546	108,670,485	1,071,019,031 (100%)	895,848,001 (83.6%)	107,820 (1.0%)		175,063,210 (16.4%)
장애인자립지원과	124,591,020	31,106,320	155,697,340 (100%)	106,463,957 (68.4%)	802,287 (0.5%)	206,400 (0.13%)	48,224,696 (31.0%)
합계	9,013,932,891	1,023,095,263	10,037,028,154 (100%)	8,214,939,133 (81.9%)	131,310,738 (1.3%)	206,400 (0.00%)	1,690,571,883 (16.8%)

I. 20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복지예산 변화

경기도 신설
복지사업은 복지예산
증가의 4.7% 수준에
불과

-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,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IoT, AI활용 돌봄사업 등임

〈표 4〉 2024년 경기도 예산증가율이 높은 사업

(단위: 천원)

구분	사업명	2023 예산액	2024년					증가율
			합계	국비	균특회계	기금	도비	
복지사업과	간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(자체/직접)	13,000	140,000				140,000	977%
장애인복지과	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(자체/직접)	1,000,000	10,000,000				10,000,000	900%
장애인복지과	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(장애인거주시설 IoT,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)(국비/지원)	7,439	21,720	20,408			1,312	192%
노인복지과	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(자체/지원)	36,000	90,000				90,000	150%
복지사업과	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구축 사업 (국비/지원)	208,000	480,000	300,000			180,000	131%

- 감액된 세부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이며,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,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(공기청정기 렌탈) 등임

〈표 5〉 2024년 경기도 예산감소율이 높은 사업

(단위: 천원)

구분	사업명	2023 예산액	2024년					증가율
			합계	국비	균특회계	기금	도비	
복지정책과	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(자체/직접)	1,110,000	200,000				200,000	-82%
노인복지과	노인요양시설확충(기능보강) 사업(균특/지원)	6,983,081	2,964,922		2,448,291		516,631	-58%
장애인복지과	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(국비/지원)	761,903	363,928	214,075			149,853	-52%
장애인복지과	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(공기청정기 렌탈 지원) (국비/지원)	86,048	43,023	39,112			3,911	-50%
복지사업과	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(균특/지원)	1,376,457	703,730		580,000		123,730	-49%

반면 '24년 새로이 신설된 복지사업은 총 34개 사업, 약 502억원 수준으로 전체 복지예산 증가의 4.7%에 불과한 수준

- ▶ 국고보조사업은 약자복지의 기초속에서 최종증 발달장애인 지원이 강화되었고, 노인들에 대한 의료-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예산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
- 또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등 복지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신설

I. 20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복지예산 변화

경기도 사업(순수광역시, 광역보조)은 다양하게 나타남

- ▶ 경기도 사업(순수광역시, 광역보조)으로는 ①민선8기 핵심복지사업(누구나 돌봄, 어디나 돌봄), ②新복지정책대상자, ③중앙정부 사각지대 보충 등 다양하게 나타남
 - 누구나 돌봄사업은 광역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1:1로 매칭되며, 어디나 돌봄의 3개 사업은 전액 도비(순수광역시)로 운영
 - 민선 8기 핵심 복지사업이외에도 新복지대상자로서 가족돌봄청년, ESG와 함께하는 나돌봄사업 등이 신설됨
 - 또한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확대되지 못한 장애인 자립주택지원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신설됨

〈표 6〉 2024년 경기도 신설 복지사업

(단위: 천원)

구분	구분	사업명	2024 예산액	
국고보조	복지정책과	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(국비/지원)	300,000	
	노인복지과	노인 의료-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(국비/직접)	20,000	
	노인복지과	노인 의료-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(국비/지원)	1,384,500	
	장애인복지과	장애인 보조기기 지원(사례관리) 자본보조(국비/직접)	34,580	
		장애인 보조기기 지원(사례관리) 경상보조(국비/직접)	3,420	
	장애인자립지원과	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:1 지원(국비/지원)	1,710,475	
		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:1 지원(국비/지원)	10,030,893	
		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:1 지원(국비/지원)	1,719,726	
	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(국비/직접)	215,000		
순수광역시	복지정책과	취약계층 주방환경 개선 프로그램(냉장고를 부탁해)(주민참여예산)(자체/직접)	100,000	
		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전 및 교육장 사업(자체/직접)	400,000	
		찾아가는 전쟁영웅 영정 촬영(주민참여예산)(자체/직접)	120,000	
	복지사업과	위기이웃 발굴 지원(자체/직접)	170,000	
		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추진체계구축(주민참여예산)(자체/직접)	120,000	
	노인복지과	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(자체/직접)	10,000,000	
		ESG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(주민참여예산)(자체/직접)	300,000	
		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(자체/직접)	331,761	
	장애인복지과	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(자체/직접)	2,119,000	
		여성장애인 교육지원(자체/직접)	20,000	
		장애인자립지원과	장애인생산물 홍보책자 제작보급(자체/직접)	100,000
			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지원(자체/직접)	90,000
	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(자체/직접)		1,175,000	
	최중증 발달장애인가족 돌봄수당 지원(자체/직접)	930,000		
광역보조	복지정책과	누구나 돌봄(자체/지원)	9,000,000	
	노인복지과	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(자체/지원)	2,950,000	
	장애인복지과	장애아동 맞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(주민참여예산)(자체/지원)	40,000	
	장애인자립지원과	장애인 자립주택 지원(자체/지원)	633,780	
		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운영(자체/지원)	576,000	
	발달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(자체/지원)	84,000		
균특	복지사업과	일상돌봄서비스 사업(균특/지원)	2,997,464	
	복지사업과	일상돌봄서비스 사업(균특/직접)	45,000	
	복지사업과	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(균특/지원)	300,000	
	노인복지과	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(균특/지원)	1,115,064	
	장애인자립지원과	장애인 자립주택 지원(균특/지원)	1,042,974	

II. '24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복지예산의 특징 및 함의

중앙정부는 '약자복지'
기조속에서 서비스
고도화를 목표

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에도 윤석열 정부의 '약자복지', '서비스 고도화'의
목표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제기¹⁾

- ▶ 보건복지 분야 총 지출은 전년 대비 12.1%가 증가한 122.4조원이며,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3.8% 증가한 104.9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외견상으로는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수준이 전체 총지출의 증가율 2.8%의 4.9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복지분야가 강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음
 - 그러나 기금분야의 증가가 예산분야의 증가를 넘어, 전체 증가분의 53.8%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
- ▶ 사회복지분야 부문별로 예산변화를 통해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
 - ① 기초생활보장: 사회복지지 총 예산의 19.9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전년 대비 8.8% 증가하여 외견상 기초수급자의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발견
 -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 폐지 등은 대상자 확대에 긍정적이나, 급여액 인상의 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액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(4인가구 기준-1.7만원),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문제로 남음
 - ② 취약계층지원(장애인): 전년대비 10.1%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분야 증가율(13.8%)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, 이는 장애인 복지가 강화되었던 기존의 흐름과는 배치
 - 약자복지의 기조속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(약 3천억원, 전체 증가분의 60%)과 관련된 것이나, 이는 직전 매년 15% 수준의 상승에 비해 낮은 14.4%의 증가에 그치고 있음
 - ③ 아동보육: 전년대비 10.6%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신설된 현금성 수당인 부모급여에 기인한 것이며, 반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년대비 11.6%가 감소하여 아동보육 분야의 예산기조가 서비스지원에서 현금성 급여로 변화
 -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현금성 급여인 부모급여(영아수당)는 전년대비 78.2%가 증가하여 아동보육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, 기존의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감소
 - ④ 노인: 전년대비 10.4%가 증가하였으나,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을 제외하면 노인일자리 세부부문의 증가 이외에는 시설 및 서비스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
 - 노인복지예산 예산 증가분(약 2.4조원)의 71%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상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, 시설의 확충,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은 예산이 감소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한 대상인구 증가에 비해 예산증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▶ 결국 단순히 예산증가율만을 고려하면 외견상 복지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실질적으로는 최근의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삭감 수준임

1) 이 부분은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분석한 참여연대 정책자료('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, 서비스 고도화 허상'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경기도 복지국 예산은
국고보조사업의
대응지방비에서 기인

경기도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복지예산 증가를 견인

- ▶ 이른바 3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복지국에 포함된 생계급여, 기초연금 등의 증가가 전체 복지국 예산 증가를 견인
 -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총 예산증가액이 전체 복지국 예산증가액의 71%를 차지하고 있어, 중앙정부의 복지(예산)의 예측화가 더욱 심화됨
 -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복지예산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정책(사업)의 발굴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의 기준변화 등에 따른 예산부담만 지게 되는 상황
 - 과거 민선7기에서도 복지예산의 총 증가분의 95%가 3대 국고보조사업(국기초, 기초연금, 아동수당)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을 결정하는 구조가 잔존

중앙정부의 정책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에도 전체적인 예산증가는 부족한 수준

- ▶ '24년 경기도에서 신설된 복지사업은 총 34개(약 502억원)이며,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굴한 사업은 20개 사업의 293억원 수준임
 - 새로이 신설된 복지사업은 총 34개로 나타나고 있으며, 총 예산은 약 502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사업이 30.7%이며, 경기도에서 자체발굴한 사업(순수 광역, 광역보조)은 58.3%로 나타나고 있음

〈표 7〉 2024년 경기도 신설 복지사업 예산 및 사업현황

구분		국고보조	순수광역	광역보조	균특	계
예산	금액	15,418,594	15,975,761	13,283,780	5,500,502	50,178,637
	비중	30.7%	31.8%	26.5%	11.0%	100%
사업	수	9	14	6	5	34
	비중	26.5%	41.2%	17.6%	14.7%	100.0%

- 그러나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예산은 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'23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기회소득의 예산 확대 등을 고려하더라도 부족한 수준

**민선8기 핵심
복지사업의 예산
확대가 긴요**

민선8기 경기도 복지 핵심사업의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이 긴요

- ▶ (장애인기회소득)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1.43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수급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의 소득 상실과 추가지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
 - 중앙정부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(차상위 등)의 대상자 감소를 예측하여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축소하였으며(장애수당-△4.9%, 장애인연금-△1.4%), 여전히 수급자격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
 - 그러나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는 장애로 발생한 소득상실과 추가적인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자격의 제한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
- ▶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'장애인 기회소득'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소득보전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, 예산의 증가가 필수적임
 -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부족한 지원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
 - 그러나 '24년의 예산은 1백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00%, 추경 포함 총예산 대비 334% 증액되어 전년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예산확대를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
- ▶ (어디나 돌봄) '24년 새로이 시행되는 어디나 돌봄사업은 총 42.3억원(전액 도비)이며, 향후 사업량 확대 및 대상자 확대가 필요
 - 어디나 돌봄사업은 장애를 가진 도민을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①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, ②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, ③최중증 발달장애인가족 돌봄수당 지원 등 3가지로 구분됨
 - 그러나 각 세부사업별 예산은 ①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-21.2억원,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-11.8억원, ③최중증 발달장애인가족 돌봄수당 지원-9.3억원 등 총 42.3억원 수준으로 향후 확대가 필요
- ▶ 향후 '장애인 기회소득'과 '어디나 돌봄'사업은 중앙정부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과 달리 수급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(최)중증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게 '더 많은', '더 고른'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고려
- ▶ (누구나 돌봄) '24년 새로이 시행되는 누구나 돌봄사업은 도비 부담은 90억원(총 예산-180억원)이며, 1단계가 완료된 이후 사업확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'24년부터 시행될 누구나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 - 1단계 추진은 15개 시군의 약 32,16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 현재 중앙정부의 돌봄 공백이 크다는 현장 및 학계의 지적이 많기에 향후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

중앙정부
복지정책사각지대에
대한 경기도 차원의
지원 확대

중앙정부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확대도 적극 고려

- ▶ (기초생활보장) 생계형 자살, 가족동반 자살 등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낮은 자활급여 일급의 보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모색
 - 최근 생계형 자살, 가족동반 자살 등이 증가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며, 경기도는 이미 자체적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등의 안정화와 브랜드 복지사업화를 위해 사업확대를 적극 고려
 - 또한 현재 경기도 사업으로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성공적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추가적으로 낮은 자활급여 일급의 보충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참여를 위한 대책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
- ▶ (장애인)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존 정책(장애인 기회소득)의 확대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축소된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 및 탈시설·장애인 자립지원 확대도 필요
 -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함께 소득보장이라는 부수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, 전년도에 비해 '24년 예산도 대폭 증가하였으나, 여전히 자격기준이 중증장애인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
 - 또한 탈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의 강화도 필요하나, 경기도 장애인 수를 고려하면 예산 확대가 필요
 -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,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(3.25억원),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(21.1억원), 자립주택 설치 운영지원(7.3억원),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(13.8억원) 등임
- ▶ (복지사각지대 발굴) 위기가웃 발굴지원,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, 예산확대를 통해 outbound 방식으로의 확대 등이 필요
 - 위기가웃 발굴지원(19억원)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(3,500건, '23년 9월말 기준)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
 - 위기가웃 발굴지원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위기가웃을 발굴하고, 콜센터는 상담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임
 - 그러나 디지털 취약계층(약자)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 '더 나은', '더 좋은'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, 이는 기존의 인바운드(inbound) 방식에서 벗어나 아웃바운드(outbound)방식으로 확대가 필요